

## [목회자 모임] 만유의 구원

2019. 11. 22. 이현래 목사

이번에 이것저것 찾아보는 기회가 생겼다. 나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반응이 여러 가지여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검색했다. 모르는 사람들은 빼 놓고,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을 검색해보니까 다 대동소이하다. 판이 같은 판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판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모두 이야기를 한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학도 지금 서구 기독교 바탕 위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판이 똑같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근본적인 것은 같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생각하기는 구속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다 애매하다. 여러분도 공부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구속은 새 창조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가 되려면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시작이 모두 애매하다. 또 그것만 애매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근원적으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애매하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그 판에서 이야기하고, 조금 더 올라간 사람이 있다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한다. 조금 더 올라가면 유대교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생각을 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세계가 가려져 있는 것 같다. 인생의 시작 자체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 뒤에는 말이 많다. 말이 많아도 매 한가지이다. 아담의 세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바벨로 가는 길이다.

나는 성경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아담이 동산을 나온 이후로 가는 길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여러분이 잘 비교해보면 전혀 틀리지 않다. 전부 다 바벨로 간다. 바벨로 가는 길에 이런 방법으로 간 사람도 있고, 저런 방법으로 간 사람도 있을 뿐이지 바벨로 가는 것은 다 똑같

다.

성경을 깊이 안다면 길이 정해져 있으니 인생이 지나온 일도 알 수 있지만 현재 일도 알 수 있고, 장래일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확하게 영원한 일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고, 이럴수록 감탄이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기독교인데, 출발이 그래서 그런지 그것은 다 똑같다. 그 중에 내가 관심을 거기서 봐서 그런지 구속이 제일 애매하다.

칼빈의 경우를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대책이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됐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려고 의롭다고 여겨주었다. 여겨준 것은 감사한데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다.

그래서 이중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성결해져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준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누리면 되는데 성화는 일방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도로 율법이다. 내가 해야 되니까 100% 은혜가 안 된다. 이것을 이중은혜라고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니 이중은혜가 합해야 완전해지는 것이다.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기독교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의 조치가 없으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서 모두 갈라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문제가 생겼다. 끝까지 가 봐야 알지 뭐 어떻게 될지 아는가? 자연히 죽은 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 구원과 소동이 굉장한 문제였는데, 그때 제일 큰 타격을 받은 데가 장로교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 대답을 못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을 못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을 못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겠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또 저 세상에 가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면서 봐라 우리 죄를 다 용서했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나왔다. 죄 때문에 엄청 고생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복음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이탈해서 나가게 되고, 이단이라고 치니까 더 나가게 되어서 큰 변동이 한 번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것들이 미비 되었기에 그런 일이 생겼다. 미국은 침례교회가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다고 들었다. 성경 교리를 배워서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했다.

조금 가다보니까 그러면 너는 죄를 짓지 않느냐? 이 물음에 대해 죄를 짓지 않는다고는 말을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아주 웅색한 대답이 나왔다. 죄를 짓기는 하지만 이미 다 용서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한 것이라는 웅색한 대답이 나왔던 것이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이상하게 된다.

이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잠잠해 지기는 했다. 그래도 그때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발에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고 몇 개월 동안 다녔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이었다. 이중은혜라는 것이 100% 은혜는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바르트는 구속이라는 말보다 화해라는 말을 썼다. 이미 객관적으로는 화해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화해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었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면 되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내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구속자라고 얘기했다. Christ is redeemer라고 했는데, 후기에는 Holy spirit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가 아니라 성령이 구속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라고 했지만 그리스도가 뭘 구속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성령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서 또 애매해진다.

몰트만에 가니까 그 문제보다 더 비신화화 문제 때문에 일생을 바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서학자니까 그렇다고 한다. 가만히 보니 일리가 있고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이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심각하게 말한 것 같다. 그 다음 사람을 봐도 안 되는 것은 역시 안 되는 것 같다. 결국 사람이 안 되는 것이다. 교리가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안 되기 때문이다.

몰트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만인 구원설이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어느 쪽에 가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갈라놓은 데가 있다. 또 어떤 데를 가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데가 있다.

어떤 사람은 한편 주장을 가지고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사람에게 있지만 구원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참 좋은 말이다.

우리도 자유가 있고 하나님도 자유가 있는데, 우리 자유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넘치는 자유가 있으니까 구원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 은혜로운 생각이다. 나도 옛날에 들었다면 빠질 뻔 했다. 내 의지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높은 의지가 있다면 강하고 높은 의지에 흡수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선악과를 놓고도 자유의지가 되니 안 되니 한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없었더라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았을 것인데 자유의지가 있어서 먹었다. 그러면 어찌겠는가? 그런데 몰트만 식으로 해석을 하면 자유의지로 먹을 수 있다. 멸망을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살하려고 했어도 그것을 건지려는 사람이 더 먼저 가면 사는 것이다. 한강 다리에 섰는데 어떤 사람이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의지가 더 크냐는 것이다.

사람은 절대적인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설사 자기가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단한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구원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는 것이다. 어떤 것이 구원인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이 구원이다. 육지로 몸을 내 놓는 것이 구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것에서 건져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에 빠졌으니까 죄를 없이 하면 구원인데 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 무슨 죄에 빠졌는지 모른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고민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넘쳐서 아들이 와서 나를 위해 죽어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해답이 안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아주 깨끗하게 해서 죄 한 방울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죄라고 치면 다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죄가 나한테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니까 해답이 안 된다.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열 번 백번을 죽었다고 해도 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죄 문제 자체가 다 견해가 다르니까 이것이 답이 될 수가 없다. 무엇이 죄인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원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 똑같다. 확실한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세계는 불확실성의 세계가 되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 불확실성의 시대가 와버렸다. 요즘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나온다. 어느 것이 꼭 옳다고 할 수 없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보면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산꼭대기도 산꼭대기 나름이지 한라산과 백두산이 같은가? 한라산에 올라간 사람과 백두산에 올라간 사람은 못 만난다. 같이 한라산에 올라간 사람은 남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

고, 북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백록담에서 만난다. 그것이 맞지만 다른 산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만나겠는가?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을 만나서 전도해보면 바로 이것이 문제다. 꼭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이 새고 만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고 나서 하는 말은 꼭 그것이 전부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나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효과가 확 떨어진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중에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것인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저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피를 토하듯이 토해내는지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숨을 바쳐놓고 말을 했다. 너무 애절하고 간절하고 적극적이고 결사적이었다.

하여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 목이 다 쉬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사람은 뻘뻘 말랐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한 시간만 하면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큰 교회인데 교회가 꼭 찼다. 이렇게 감정에 호소를 해야만 감동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쉬워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라도 이것은 쉽고 간단하다고 해야지 이제 또 새롭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트만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다 성취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원이 다 성취되어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꼭 볼트만만 그렇게 한 말이 아니다. 바르트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객관적으로 다 성취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되어 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갈 길이 이미 다 만들어졌고, 전부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새롭게 개척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새롭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구원이 이른다는 이런 것은 알고 보면 없다. 객관적으로는 다 이루어졌다. 주관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주관적으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게 되면 간단한 것이다. 사람들이 누가 본을 보여

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만족 할 만큼 본을 보여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가령 목사님들이 앞에서 정말로 저것이 구원이라고 보여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믿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문제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까지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된다.

만일에 만민구원, 더 나가서 만유의 구원이 되려면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되어야만 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근원이 애매하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것이 꼭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 다 헛일이다. 사람이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 다 헛일이 된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러면 다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하였더라. 도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버린다.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하였더라는 그 한마디로 다 끝난다.

기독교인, 그것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것이다. 불교인, 그것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것이다. 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끝에 가서 보자는 것인데 끝에 까지 가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중간에 죽어버린다. 맞춰볼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런 비유로 많이 쓰는데 거리를 측정하려면 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점이 필요하다. 자를 아무리 정말 정확하게 해서 여기서 달나라까지 잴 수 있는 그렇게 정확한 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디부터 재야하는지 기점이 있어야 한다. 자만 주면 그 거리를 측정하겠는가?

이 넓은 땅에 어떻게 종이를 가지고 찾아와서 측량 하는가 했더니 길바닥에 가보면 기점을 표시하는 것이 박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측정하는 도구를 매고 와서 그것만 찾는다. 그것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재기 시작한다. 항상 기점이 있으니까 지도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넓은 땅을 잴 수 없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몇 KM라고 하려면 시발점이 있어야 된다. 철도나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푯말이 붙었다. 어디서부터 몇 KM라는 것이 적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원형을 원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없

이는 구속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해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백날 재도 오늘 쟀 것이 다르고, 내일 쟀 것이 다르다. 이 사람 쟀 것이 다르고, 저 사람이 쟀 것이 다르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다 각자 자기 길로 가보자. 가보면 어딘가에 가서 진리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로 만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 그러려면 굳이 교회를 하고 말 것이 없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살면 된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들 해서 좀 아까웠다.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뭔가 건질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 건져 먹을 것이 없다.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오늘 저녁에 소고기 나온다 하면 기대하고 있는데, 소고기 덩어리는 하나도 없고 국물만 나오니까 소가 장화신고 지나갔다는 말이 나왔다. 그냥 맨발로 지나갔으면 누린내라도 날 텐데, 장화신고 지나가면 누린내도 안 난다.

내가 공부 못할 길로 들어선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건이 되었다면, 평생 공부했으면 나는 공부만 할 사람이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책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평생을 바칠 뻔 했는데, 이만큼 공부한 사람들이 내 놓은 것이 결국 고깃덩이는 한 점도 없고 장화냄새만 나는 소고기국이 들어왔으니 어찌 되겠는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렇다.

만민을 구원한다는 것이 참 좋은데 이것도 공중에 뜬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기독교, 바울의 종교라는 사람도 있다. 예수 종교가 아니고 바울의 종교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 다 제각각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없고 다 자기를 빼놓고 이야기한다.

이번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누가 뭐라고 써 놓았다.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고 죽었다는 이야기에 대해 자기 단상을 써 놓았다.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고,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것만 일 수 없다고 해 놓았길래 내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것이 자네 말이다.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자네라는 말이라고 했다.

내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는 빼놓고 남 이야기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내가 남을 가르친다고 되겠는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을 소경이 소경을 인

도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갔어야 그만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간만큼 내가 인도한다. 그런데 아무데도 안가고 안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사람을 인도하겠는가? 실험을 해봐야 한다.

과학은 실험을 해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다. 거짓말을 못한다. 그런데 신학이나 철학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로 참말만 하고 싶은데 실험이 안 된다. 자기가 실험을 하고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진실하다. 안한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일부러 한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되고 만다.

나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확실하게 경함한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그만큼이라도 사람을 내가 건져내는 것이다.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백날 이야기하면 뭐하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라고 했으니까 기독교가 최고라고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거기다 붙여서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다. 자기 아버지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아들이 길이다. 아들이 아닌 사람은 남의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는 길이 되는가?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아니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는 실재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다. 그래야 맞다. 객관적으로 예수는 길이라고 해서는 요즘은 안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 다 그것이다. 그래서 오해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오해 당할 일도 없고 죽임당할 일도 없다.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다. 당연하다. 자기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이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나타낸다. 너무 맞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 내가 쏘면 내 아버지도 쏘시다. 그런데 나를 보고 네 아버지 성씨가 뭐냐고 묻고 있으

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개에게 네 아버지가 뭐냐고 물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개 아버지는 개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인가? 자기 아버지다. 예수 아버지다.

이분은 근원에서 말씀하시는 분 같다. 근원에서. 근본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사람이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도 모르면 그것을 부인하고 나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해결이 되겠는가?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사랑할 만한 은혜를 입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어놓았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갈 길이 없다. 왜 만들었는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인데, 충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길로 갈 것인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뭘 설교 했는지 모르겠다.

한 10년을 했는데 다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다. 나도 갈 데를 모르는 사람인데 뭘 잘했겠는가? 성경 잘 가르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쉬운 것인데, 남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렇게 어렵다.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면 쉽다. 그런데 남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면 어렵다. 개가 자기 아버지 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참 쉽다. 그런데 남의 아버지 소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개가 어떻게 소를 알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15:1)** 당연한 일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과실)를 많이 맺나니.”(요15:5)** 너무 간단한 말이다. 이것은 연구하고 말 것도 없는 이야기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과실)를 많이 맺나니.”(요15:1,5)** 너무 쉬운 말이다. 자기는 참 쉬운 말인데,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연구하려니까 그렇게 어렵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체험된 것을 실험된 것을 말해야 된다. 알고 보면 객관적

으로는 다 만들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신 일이다. 나와 의논한 일도 없고, 내가 그것을 요청한 일도 없다. 내가 알지도 못하니 요청을 했겠는가? 다 이루어놓았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사신 것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일부로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다. 일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생한 것 같지 않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지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야겠다, 꼭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죽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된다. 그 안에서 내가 저기 있구나. 저 사람 안에 내가 있구나. 나도 저 사람과 같구나.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일일이 나한테 와서 해 준 것은 없다.

그 형제에게도 남이 아니고 너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 너한테 한 말이고 나한테 한 말이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우리가 뛰어내려보라고 하면 어찌겠는가? 못 뛰어내릴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갔는데 시원치 않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지 떡만 먹는 것이 인간이냐? 개도 떡 먹고 고양이도 떡 먹는데, 떡 먹는다고 인간이냐고 하면 된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하겠는가? 그런 말을 했으면 되는데 그런 말을 못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이 말을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것이다. 사탄도 질문할 여지가 없다. 조롱할 여지도 아예 없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있다. 다른 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가 있다. 남이 아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졌다, 나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졌는지, 어떻게 내 대신 졌는지, 그것이 도저히 실감이 안 났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이 나다. 남이 아니고 나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네가 목사냐? 그러면 이래 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네가 목사냐? 그러면 이래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 말도 감당하기 어렵다. 목사가 되어서 그 모양이야?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다. 목사들은 참 어려운 말이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목사라는 이 말을 듣기 참 어렵다.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봐. 예를 들어 너 진짜 목사야? 이렇게 물으면 진짜 목사라고 대답하고 싶지 나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겠는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보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시겠는가? 못할 처지니까 못한 것이지 일부러 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있다. 일부러 안했으면 나는 그 안에서 나를 못 찾는다. 일부러 안하실수 있는 분 같으면 거기서 내가 어디서 나를 찾겠는가? 나와 천리만리 먼 사람이다. 가깝고도 먼 당신이 되고 만다. 그런데 말씀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지 따로 나한테 와서 무엇을 해준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는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말이다. 다 이루어졌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 들이냐? 또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다 네 것이라고 해도 그 믿기만이 안 된다. 잘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내가 밤새도록 토론을 했는데 안 된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다 알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

면 아주 골치가 아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 성취해 놓았으니까 네 것이라고 한다고 간단하게 믿겠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할 필요도 없다. 보면 알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이다. 너무 쉬운 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1:21)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다.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돌을 보고 돌이다. 돌이다. 이것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그런데 할 수 없다. 왜? 이것은 세계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아기를 낳아서 그냥 다른 사람이 키웠다고 생각해보라. 그 아기가 부모를 아는가? 모른다. 사람이 별것인줄 알지만 자기 엄마도 모른다.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히려 짐승들은 냄새를 맡고 아는 수가 있는데, 사람은 모른다. 엄마도 낳고 말아버리면 모른다.

개들도 새끼를 키우다 새끼를 데려다 바깥에 며칠 두었다가 데려오면 냄새를 맡아보고 자기 냄새가 안 나면 물어버린다. 그 놈들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냄새로 아는 것 같았다.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냄새를 맡아봐도 모르고, 눈으로 봐도 모른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는가? 이것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부득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다. 또 새로 어떻게 만들라는 것도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복음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원이고 잘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율법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일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또 좋은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는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안 먹는 놈 대신 먹여 줄 수 없다.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엄마들이 요즘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따라다니며 밥을 먹이려고 애를 쓴다. 왜냐하면 안 먹으려는 놈의 의지보다 먹여야 하는 엄마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이고 자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지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복종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관심이 없는데, 새롭게 관심을 일으키고 새롭게 도전하고 어찌하든지 그렇게 되도록 하려는 그것이 나보다 큰 의지이다.

우리는 피 복음,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보다 더 큰 의지가 있어야 한다. 덮을 만한 의지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다. 김이 팍 새고 만다. 그것만 전부입니까? 성경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써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러면 김이 팍 새는 것이다.

바울이 어디서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것이 들어볼 만하다. 내일 또 들어보자 이려고 갔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김이 새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받을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우리 교회가 대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되었다. 왜 그 말을 듣게 되었는가? 초창기에 형제들이 좋아서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론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놔두고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놔둔다. 더군다나 대구 사람들은 굳이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돼버렸다. 우리는 한번도 변명을 못해보았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못해보았다. 말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한번은 양문회보를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어느 대학교에 갖다 놓았다. 어떤 놈이 와서 한 주먹을 가져가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많이 가져가나 하고 봤더니 꼬깃꼬깃하게 해서 쓰레기통에 넣고 가더라는 것이다. 그것도 예수 믿는 놈이 그랬다. 세상이 이렇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는 복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읽어본 바로는 근원이 없다. 모든 문제가 근본이 없다. 회개해도 어디로 돌아갈 데가 없고, 구원 받아도 어디로 돌아갈 데가 없다. 무엇이 구원인지가 없다.

무엇이 구원인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이 좋아지겠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착해지겠지. 이런 것 이상 더 알 수 있겠는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 열심히 오겠지. 이런 것 외에 알 수가 있는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씩 사람이 돌아오면 그것이 참 기쁘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람이 돌아오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돌아오면 너무 기쁘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좋아했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제자들이 여태까지 시장하실 텐데 뭐하고 어떻게 배고픈데 견디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요4:32)고 했다. 듣고 있으면 배가 안 고프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받을 값이 그것이다. 혜택이 그것이고, 은총이 그것이다. 전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기쁨이 없다. 여러분은 이제 이미 세상 기쁨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고 또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목사를 하지 재미가 있으면 목사를 하겠는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면 기쁨 일도 없다.

우리 평생에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평생을 살아도 모자랄 그럴 분이고,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할 그럴 분이다.

나는 옛그제 사랑방에 그렇게 썼다. 생각해보니 지난 일 년이 제일 알뜰하게 산 것 같다. 사실은 지난 일 년 동안 맨날 잠자고 먹는 것밖에 못했다. 침상 놓고 드러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생각해보기 아 알뜰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라도 만나면 꼭 그 말을 하고 싶다. 이 복음을 말하고 싶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여유가 많으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 귀찮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은 귀찮든지 말든지 하고 싶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너한테 줄 것이 없다.

아들이 집에 와도 아들과 어떻게 말을 해볼까? 이 생각 밖에 안 든다. 왜냐하면 내가 줄 것이 그것밖에 없다. 돈이 있어서 돈을 주겠는가? 또 주어도 소용도 없다. 인생사는 지혜도 이야기해보니까 그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만 그것도 재미가 없다. 자기가 살면서 배워야지 배우면서 배워야지 내가 가르쳐준다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

아들이 집을 짓는다고 해서 두고 보았다. 자기가 어디 가서 다 알아보았다. 인터넷 시대니까 다 조사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집을 짓는다고 지어봤는데 굉장히 어렵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좀 싸게 하려고 해보면 돈이 더 들어가고 공사기간만 더 들어간 것이다. 다 짓고 나서 고생 많이 하고 하는 말이 절대로 집은 지을 것이 아니고 살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 하나 배웠다. 네가 돈은 손해나지만 한 가지만 배웠으니 됐다고 했다.

얼른 생각하면 집을 직접 짓고 자영하면 좋을 것 같다. 싼 값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안 된다. 나는 업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주면 한번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과 또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없다. 맛보기다. 그런데 업자들과 싸여진 사람들은 일을 잘못하면 찢리니까 잘해야 된다.

값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돈이라고 하고 나가는 그 돈이 아주 중요한 돈이다. 그것을 아끼다가는 훨씬 돈이 많이 들고 고생을 많이 한다. 다음에 A/S 받으려고 해도 받을 데도 없다. 자잘한 업자들을 데려다 놓으면 다음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 그런데 조금 큰 업체에 맡기면 고장 나면 부르면 온다.

값싸게 할 줄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값싸게 안 된다. 내 손으로 바로 짓는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남을 불러서 지을 바에는 업자들이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키기만 하지 아무 일도 안 한다. 옆에서 보면 저 일은 내가 하면 되지 뭐하려고 저런 돈을 줄 필요가 있나 하지만 안 된다.

시장에 나가니까 배추 한포기에 5천원을 한다. 전라도 어디 밭에 가면 천원을 한다고 밭에 가서 천원 주고 그것을 사오겠는가? 갔다 오면 차비가 몇 만원이다. 많이 남기는 것 같지만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편하다. 세상을 살아봐야 알지 안 살아보면 잘 모른다.

신문기자들이나 라디오 기자들의 말을 들으면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생산지에서 천원하는데 가락동 시장에서는 만원한다고 욕을 한다. 만원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 된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 아버지는 돈을 번다고 하더니 도둑질한다고 생각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한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만두에서 뭐가 나왔다고 보도를 해서 길거리에서 만두 장사 하는 사람들이 다 문 닫고 다 망했다. 그런 놈은 정말 잡아다 곤장을 쳐야 한다. 그런데 그런 놈이 큰 소리를 치고 돌아다닌다. 얼마나 많은 영세업자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른다.

세상이라는 것은 다 그래저래 먹고 살라고 만들어졌지 공짜가 없다. 아무것도 그냥 된 것이 없다. 천원짜리가 만원이 되어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한번 집을 짓더니 고개를 흔들고 절대로 집은 못 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큰 집을 짓기 전에 배운 것이 다행이지 또 집을 지었으면 어쩔 뻔 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조금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면 그것이 크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노하우가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명한 신학자들을 공부했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공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뒤에 가니까 결론이 없다. 말은 정말 그럴듯한 말이 많고 모를 말이 많은데, 뒤에 가면 얻어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얻어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은 참 은혜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평생 전할 복음을 가졌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부르셔서 무엇 하려고 불렀는가? 이것을 주려고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도 이것밖에 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날들을 가진 날이 아주 알뜰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금년 한해가 가장 알뜰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금년 한해가 가장 낭비한 해 같은데, 가장 알뜰한 해라는 생각이 든다. 자나 깨나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나는 이렇지 못한 사람이다. 생각이 많고 어지러운 사람인데, 생각이 이 생각 밖에 안 난다.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마지막 결론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라 해도 좋다. 몰드만도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 맞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신다면,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된다면 그것이 마지막 날 아니겠는가? 끝난다는 말이 아니고 완성된다는 말이다. 마지막 말이라는 말이 그 말이다. 마지막 이라는 말이 너무 잘못 전파되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서는 마지막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요즘 사과를 따던데 탐스런 사과를 딸 때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농사지을 때는 고생을 했겠지만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시골에 가면 가난한 집도 그렇고 부한 집도 그렇고 가을이 돌아오면 마당이 다 풍성하다. 그때만은 부자가 부럽지 않다. 봄 되면 곡식이 떨어지지만 가을은 모두가 다 풍성하다. 열매를 거두는 길로 우리를 인도했다. 적든지 크든지 그것이 사과가 되어도 좋고, 복숭아가 되어도 좋고, 못 생긴 모과가 되더라도 열매를 거두는 길로 왔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그가 죽어서도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또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셨다. 이보다 복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가졌다는 것, 결정적인 말을 가졌다는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다.

감사합니다.